

제가 이야기 하나 해 줄게요  
Kathleen Molaro, OFS  
프란치스칸 청년회 위원회 의장

매년 산타크루즈에서 열리는 청소년 캠프에서 20 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밤을 지내며 야영의 모닥불 앞에 모였다. 매일 밤마다 특별 기도회로서 하루일가를 마치고 하였다. 기도에 도움되는 자료를 나누어 주고 있었을 때, 문득 어떤 한 청소년이 나를 향해 불쑥 말을 하였다. “또 기도예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거룩 하신가요?” 그가 한 말에 우리 모두는 웃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며 나는 대답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하나 해 줄게요” 라고 하며 나에게 몰두해 있는 그룹에게 나는 대학시절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말에 충격 받은 십대들에게 내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은 환멸, 바쁜 대학생활, 그리고 신앙 공동체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대학졸업후 다시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며 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나는 청년 성서 공부 그룹을 만든 어떤 한 신부님과 친하게 지냈다. 우리 모두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어떤 하루 나는 나의 고독함에 대해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나의 대학시절친구들에게 돌아 가고 싶다고 했다. 신부님은 “너는 친구들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어. 하느님만이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의 격려에 힘입어 그 다음날 나는 고해성사를 했고 몇 명의 친구들에 함께 3 년만에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했다.

깜깜한 밤에 나무들에 싸여 탁탁 거리는 불 근처에 둘러앉은 편안히 분위기속에서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청소년 들의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대해 토론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단지 의무 때문에 교회에 간다고 했다. 다른 청소년들은 성체 모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며 그들 자신의 신앙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몇 청소년들은 내가 전에 가졌던 그런 공허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안전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그룹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기쁘게 그 밤을 기도 로 마무리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 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끌어 들이게 즐겨 쓰신 방법은 이야기하는 것 (비유)이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께 때를 지어 말했다. 교회도 또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이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시노드 개최때에 이야기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셨다. “각각의 만남은 솔직함, 용기와 다른 이 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 하셨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경청할 때,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말이 편견없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유롭게 그들 만의 경험과 영적 여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1~2023 시노드 첫 미사 때에 하신 강론)

우리 각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처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속에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보다 젊은 카톨릭 형제 자매들 과 함께 이러한 여정의 이야기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의미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좋은 청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빛의 자녀들'에서 주교님들이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듣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마음을 열어 그들의 경험, 근심, 의심에 대해, 그리고 진솔하고 건설적인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청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고 교회안에서의 그들의 삶의 중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고 설명하신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와 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 “기도적 식별은 주님의 말씀 과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현실 자체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준비에서 생기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72 항)

좀 무섭게 들리세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혜택이 우리가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당신 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들을 알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세요. 진정한 사람이 되세요.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당신의 이야기도 나누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속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영국 성공회소속 마이클 커리 주교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지침을 정하셨다. ([buildfaith.org](http://buildfaith.org)) (4 번 과 5 번 단계들을 여러분의 형제회의 영속적 양성 시간에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당신 자신의 신앙 여정시간대를 만들 것.
2. 당신의 여정속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었던 매순간들을 회상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찾아낼 것.
3. 자신에 대해 당신이 배웠던 것을 일기로 쓰거나, 영적 친구와 같이 이야기 나눔.
4. 지금 현재의 당신의 삶이 어떻게 성서 귀절이나 교회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는가?
5.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가?